



2016년 10월 4주차

##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0월 24일(月) : 주간회의(11시)
- 10월 26일(水~)27일(木) : 야간강습 휴강(김건우 교수 학과답사)

## ■ 연구원 행사

### ○ 44회 문화강좌 안내

- 주 제 : 일본 문학가 나카노 시게하루의 시에 나타난 재일 조선인의 삶
- 강 사 : 서동주(서울대 HK교수)
- 날 짜 : 2016.11.05.(토) 16시
- 장 소 : 한지산업관 201호

### ○ 연구원 소모임 인자요산 답사 안내

인자요산에서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에 위치한 옥출산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옥(玉)이 많이 난다하여 옥출산이라 불려 온 이 산은 순창의 남쪽 맨 끝자락 섬진강 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상 황룡이 섬진강으로 뛰어 드는 황룡입연(黃龍入淵) 형상 또는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는 갈용음수(渴龍飲水) 형상입니다. 산 정상에 서면 일제시대 순창을 거쳐 담양 광주로 이어질 철로를 만들다 해방으로 멈춘 흔적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산의 높이가 300미터가 되지 않지만 바위가 많아 왕복길에 약 2시간 이상 걸리는 "인자요산" 사상 최고의 난코스입니다. 일일 예상 강수량 50mm 이내일 경우 눈·비가 오더라도 11월 19일(토) 9시에 연구원에서 출발합니다. 전주에 도착예정 시간은 오후 5시경입니다. 연구원에서 차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립니다.

## ■ 연구원 소식

### ○ 한국고전학연구소·연구원,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 10월 19일(水)에는 '호남인물 읽기'의 일환으로 『노사 기정진 연보』를, 20일(木)에는 '전북의병사료 읽기'의 일환으로 최제학의 『습재실기』를 교재로 하여,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강의가 연구원 201호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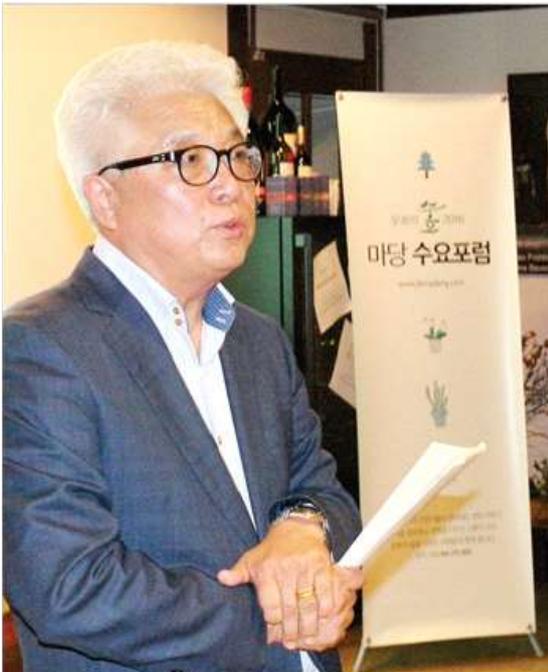
10월 19일(水)에 진행된 강의 내용은, 면암 최익현이 연재 송병선에게 보낸 편지를 강독하는 수업이었습니다.

10월 20일(木)에 진행된 강의 내용은, 습재 최제학이 쓴 '병오거의일기(丙午擧義日記)'를 강독하는 수업이었습니다.

※ 이번 주 야간 강좌는 김건우 교수가 학과 답사 길잡이인 관계로 휴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 변주승 상임이사 사회적기업 마당 수요포럼

본 원고는 우리 연구원 변주승 상임이사가 협약기관인 사회적기업 “마당” 수요포럼에서 '국역여지도서로 본 전주'란 주제로 강연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월간 문화저널(<http://munhwajl.com/>)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흔에 시작한 작업은 마흔여덟이 되어서야 끝이났다. 그가 8년간 번역한 분량은 200자 원고지 6만매 분량. 2009년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변주승 교수(54)는 마침내 50권에 이르는 『국역 여지도서』를 펴냈다. 그리고 2014년 또다시 90권에 달하는 『국역 추안급국안』을 세상에 내놓았다.

『조선왕조실록』 번역 이후 가장 방대한 작업으로 꼽히는 두 책의 번역으로 그는 고전 번역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역사연구의 진전을 가져왔다.

30대 중반부터 한문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해왔으니, 어느덧 20년이다. 고전을 번역한다는 것은 어쩌면 시간과의 싸움이자 자기자신과의 싸움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전이 지닌 가치와 역사의 중요성을 알기에 그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 『여지도서(輿地圖書)』를 펼치다

“『여지도서』의 여지(輿地)는 우리가 사는 땅을 뜻합니다. 즉, 천하, 전국 팔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것처럼, 조선이란 나라도 국가를 운영하려면 파악을 해야 했죠. 그렇게 파악한 것이 '지리지(地理誌)'라는 겁니다. 조선 전기에는 『세종실록지리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고 다시 보니까 이 데이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임금 때 새로 조사해보고자 한 것이 『여지도서』입니다.”

『여지도서』는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영조 41) 사이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읍지다. 조선 8도의 자연과 물산, 인물 등이 정리돼 있는 책으로, 오늘날 전통문화의 뿌리를 조선시대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볼 때 『여지도서』 번역이 우리 역사를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했다.

“팔도 감사에게 명을 내려서 각 읍에서 읍지를 올려 보내도록 했죠. 그런데 번역자가 나오면 고을이 없어지고, 왕비가 나오면 만들어지다 보니, 상당수 마을이 빠져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은 전라도와 경상도였고요. 국가에서는 어느 지역을 들어가고, 어디는 빠져있으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읍지가 있으면 끼워 넣은 거예요. 전주편도 사실은 『완산지』라는 지리지를 끼워 넣은 겁니다.”

『여지도서』는 『동국여지승람』을 기초로 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내용을 강화했다. 그렇게 탄생한 『여지도서』에는 조선시대 마을 350곳, 정보 40여가지가 수록돼 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산과 강, 저수지의 깊이, 도로의 폭, 논과 밭의 면적, 창고는 몇 칸, 주요 명승지와 절,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과 건물들이 다 정리돼 있었다. 때문에 지역사 연구의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각 읍의 첫머리에 읍별로 채색지도가 부착돼 있는데, 변 교수는 『여지도서』가 조선왕조가 국가차원에서 조망한 마지막 인문지리서라는 점에서 지도를 복원하는 일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고 했다.

현재 『여지도서』는 대한제국 말엽 서양 선교사 손에 들어가 명동성당에 보관돼 있다. 변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흑백으로 찍어 묶은 영인본을 가지고 번역 작업을 했다.

## 두 번째 도전,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2014년 변 교수 연구팀이 『국역 추안급국안』 90권을 발간하자 또 한번 세상이 떠들썩했다.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약 10년간 진행된 작업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제외하면 단일 번역서로는 최대 성과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1601년(선조 34)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에 관한 중죄인을 체포해 심문한 기록이란 점에서 학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보였다. 279건의 사건기록, 사건 연루자만 1만 2천명으로 양반과 노비, 관료와 상인, 농민, 궁녀 등 중죄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적어 일반 대중들도 관심을 갖기 충분했다.

“조선 후기 범죄 수사기록을 통해 당시 전라도 지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호남지역 유향검 순교 기록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인좌의 난의 경우 태인 관아에서 내린 명령으로 자신을 마지못해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당시 죄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배층의 권력투쟁, 서민들의 생활상 등 조선시대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추안급국안』은 조선 후기 정치, 범죄 사회사 자료로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변 교수는 『추안급국안』이 학문적인 자료를 넘어 점차 소재가 고갈되어 있는 드라마, 영화 등 2차 창작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앙에서 『추안급국안』을 TV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자는 제안을 비롯해 여러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번번히 거절하였다. 『추안급국안』은 번역이 전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콘텐츠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추안급국안』이 나온 지 2년이 됐습니다만, 아직 인터넷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서울이 알아서 다 해먹을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야말로 전통문화지역이고 또 전주에서 이뤄진 성과니만큼, 전주에서 우리의 역량으로 지역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하고 개발하길 바랍니다.”

변 교수는 완고했다. 한문을 번역해 20년 동안 빈틈없이 정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확고한 신념과 고집스러움으로 그는 『여지도서』와 『추안급국안』이라는 전주의 원석을 발굴했으며, 번역이라는 힘든 작업을 통해 지켜나가고 있다. 이제 그 원석을 빛나는 보물로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작 품

#### 淸平調詞(第3首)

#### 청평조사(제3수)

名花傾國兩相歡(명화경국양상환) 이름 높은 모란꽃과 경국지색 양귀비가 서로 기뻐하니  
常得君王帶笑看(상득군왕대소간) 군왕은 항상 웃음 띤 눈길 지니게 되어,  
解釋春風無限恨(해석춘풍무한한) 봄바람에 끝없는 한 풀어내며  
沈香亭北倚闌干(침향정북의란간) 침향정 북쪽 난간에 몸을 기대었구려.

### ■ 작자소개

- 이백(李白, 701~762). 중국 당나라 때 시인으로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대의 시인이다. 두보가 시성(詩聖)이라 불리는 한편 이백은 시선(詩仙)이라 불린다. 이백의 시는 <산중문답(山中問答)> 등 1,100여 편의 작품이 현존하는데, 주로 낭만적인 성향의 시들이다. 시풍이 호방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언어 사용이 명쾌했으며, 그 사상적인 기반은 도교였다.

### ■ 감 상

- 모란에 취해, 양귀비에 취해 현종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실 날 없다. 한없이 다정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는 현종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살랑대며 부는 따사로운 봄바람은 끝없는 현종의 시름을 한 올 한 올 다 풀어낸다. 느긋한 현종의 자세는 침향정 난간에 비스듬히 기울어질 밖에 없다.